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승숙*, 신동열**

드림케어주간보호센터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grative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with Early Dementia

Seung-Suk Paek*, Dong-Yeol Sin**

Director of Dream care center*,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변화과정을 행동변화 관찰일지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연구와 함께 질적연구를 통한 심층 분석을 이용한 혼합연구를 설계하였다. 양적연구는 수원시 P 구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초기치매노인 20명을 실험대상으로 사전 사후검사를 하였고, 질적연구는 초기치매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행동변화 관찰일지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p < .001$, $t = -5.871$)을 미쳤다. 둘째,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p < .001$, $t = 5.325$)을 미쳤다. 셋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사전, 사후 변화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초기치매노인과 관련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등에 실효적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초기치매노인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주제어 통합예술치료, 초기치매노인, 인지기능, 우울, 혼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examine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the early dementia elderly, and to identify and discus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early dementia elderly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behavior change observation diary. As a research method, a mixed study was designed using in-depth analysis through qualitative studies as well as quantitative studies on the effect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The quantitative study conducted a pre-post examination of 20 elderly people with early dementia using the day care center in P-gu, Suwon, and the qualitative study analyzed the behavioral change observation diary of 10 elderly people with early dementia. These findings show that first, integrated art therap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p < .001$, $t = -5.871$). Second, integrated art therap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p < .001$, $t = 5.325$). Third, the integrated art therapy program changed to a positive attitude before and after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By revealing the effect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meaningful as basic data for research related to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as well as providing effective information on integrated art therapy programs related to the elderly with early dementia.

Key Words Integrated art therapy, Early dementia elderly,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Mixed study

Received 29 Dec 2023, Revised 09 Jan 2024

Accepted 16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Dong-Yeol S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counme3@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치매는 진행성 뇌 질환으로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초기치매노인의 주 증상은 기억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지기능의 저하로 나타난다. 인지기능의 저하는 감각기능의 쇠퇴와 지각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를 가져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일으킨다.[1].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치매환자의 우울은 정상 노인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3배가량 높고[2], 자아존중감의 상실, 사회적 고립, 신체적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약물과 비약물 치료가 활용되는데 비약물치료로는 회상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푸드치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합예술치료는 예술의 각 영역을 2개 이상 통합치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표현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통합예술치료를 이용한 노인의 우울, 인지, 사회적응,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3-6]가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예술치료가 노인에게 인지적, 심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뇌의 쇠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로 삶의 만족도 저하를 갖게 되는 초기치매노인에게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기치매노인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통합예술치료

통합예술치료는 다양한 예술치료 접근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 치

료, 시 치료, 드라마 치료 등을 창의적 연결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 매체가 갖는 독특한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하는 치료이다[7].

통합예술치료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문제에 초점보다는 문제를 둘러싼 환경 즉, 개인사, 정서,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있다. 또한 집단 프로그램과정 속에서는 구성원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른 계기를 형성하며, 규칙과 질서를 통해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통합예술치료는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되는데 인지활동이 둔화되는 초기치매노인에게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치료 구성에 있어 인지중심 접근법, 정서중심 접근법, 행동중심 접근법, 자극중심 접근법 중 2가지 이상의 접근법이 결합한 통합적 인지 강화 접근법을 기초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2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초기치매노인은 과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기억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8].

학자별로 기억력 장애가 시작되는 경도인지장애노인을 초기치매노인으로 포함하기도 하는데[9], 본 연구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을 초기치매노인에 포함하도록 한다.

인지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등록 회상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신기능으로 주의력, 기억력, 언어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함하는데 초기치매노인은 정도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주 증상은 기억력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인지능 저하를 보인다[10].

초기치매노인에게 인지기능의 결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능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기본 목표로 삼고, 적절한 자극을 통해 인지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지적 손상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11].

우울은 우울한 기분을 주로 느끼게 되는 기분장애로 초기치매노인에게서는 비인지적 증상을 행동 심리증상이라고 하는데 증상에는 우울, 망상, 배회, 초조 불안장애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 우울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40~50%에서 우울이 발생하고 치매의 경과

중에 우울장애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초기치매환자에게서 보이는 우울증상은 흥미가 없고, 일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려는 능력이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거나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10].

그러나 초기치매노인 우울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자살 충동으로 인한 자살 시도나 고독사로 이어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

2.3 선행연구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지연(2020)은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우울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및 개인의 변화를 통해 우울과 자아통합감의 정도가 프로그램이 지속될수록 개선 및 증진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2]. 김소형(2018)은 “치매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행동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서 치매노인들이 우울감이 감소하고 안정이 유지되며 관심과 기쁨의 증가로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13]. 엄세정(2018)은 “통합예술치료가 치매초기 노인의 우울감소 및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서 집단 통합예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감소와 생활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치매증상에 대한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4].

이미정(2018)은 “치매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적용”에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김해선(2017)은 “회상중심 통합예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생활만족도,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상중심 통합예술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지기능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상중심 통합예술치료는 우울과 불안에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상 중심 통합예술치료는 인지, 우울, 행동관찰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회기별 평가자 평정점수는 긍정적 결과의 행동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도출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치매노인의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인 우울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으로 통합예술치료가 효과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통합예술치료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12회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예술치료를 통하여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심층적인 연구를 더 하였다.

3.1 연구설계

프로그램의 구성은 회기별 목적에 따라 총 5단계의 발달단계로 나누었으며 점차 진행되었다. 통합예술치료를 실시를 위한 연구설계 및 실험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통합예술치료 연구 설계 및 실험 내용

연구설계	실험내용	대상집단
연구대상자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
통합예술치료 작성	12회기 프로그램 작성	
통합예술치료 실시	라포형성 초기 중기 종결	초기치매노인 선정집단
통합예술치료 평가	사후검사	초기치매노인 선정집단
연구결과 분석	연구 문제검증, 결과분석	초기치매노인 선정집단

3.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수원시 P 구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90세 이하의 초기치매노인 2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MSE-K 측정에서 23점 이하로 인지 저하로 인한 초기치매노인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4세이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특성

대상	나이	성별	치매정도	경제력	학력	성격
1	84	여	초	중	대	밝음

2	81	여	초	상	대	조용
3	71	여	초	중	초	온화함
4	79	여	초	상	초	밝음
5	90	남	경	중	초	강직함
6	82	여	경	상	초	유쾌함
7	86	남	경	상	대	온화함
8	81	여	경	중	고	자존심 강
9	83	여	초	중	초	불안함
10	81	여	초	중	초	자존감 강
11	88	여	경	하	초	강직
12	89	여	초	중	초	다혈질
13	81	여	초	중	초	조급함
14	89	남	경	중	고	강직
15	85	남	초	중	고	온화함
16	87	여	초	중	초	다혈질
17	85	남	초	중	중	조용
18	88	남	경	상	고	불안정
19	80	여	초	중	중	밝음
20	78	여	경	상	고	불안정

3.3 연구도구

3.3.1 인지기능척도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척도는 인지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Folstein(1975)[15]이 개발한 MMSE를 권용철과 박종한(1989)[16]이 한국 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 방법 및 해석은 19점 이하면 확정된 치매이고 20~23점은 치매가 의심되며 24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평가된다.

3.3.2 우울척도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는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5문항으로 구성된 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Sheikh & Yesavage, 1986)[17]를 송미순(1991)이 변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18].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표시하였다. 평가는 5점 이하는 정상이고, 6~9점은 우울 가능성이 있으며 10점 이상은 우울로 해석된다. 설문지의 * 항목은 역문항으로 채점된다.

3.3.3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김천호(2007), 양은진(2012), 정찬구(2012), 심숙영(2022)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하였다[19-22].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효과적 초기치매 노인의 비약물적 요법의 적용 기간이 3~24주인 점과 이중과제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 연구 결과가 4주, 12회인 점을 고려하여 중재 기간을 4주간 3회, 총 12회로 설정하였다[23].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60분으로 설정하였으며, 초기, 중기 I, 중기 II, 종결 네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매회기 종료 후 대상자들의 변화를 사회복지사가 일지로 작성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과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또한 매회 시작 전후 실시한 담당 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들의 변화를 자유롭게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회기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치매 노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자료
1	자기 소개	- 실을 이용한 자기 이름 표현하기	도화지, 다양한 색실, 풀
2	가족에서의 '나'	- 색종이를 이용하여 물고기 접기를 한다. - 어항에 색종이 물고기를 이용하여 가족에서의 나를 표현한다.	색종이, 풀, 어항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색연필
3	풍선 놀이	- 풍선을 분다. - 라켓을 이용하여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재료를 이용한 우울한 감정 떨치기	풍선, 라켓
4	부채 만들기	- 다양한 부채를 보여준다. - 부채를 꾸며본다. - 음악에 맞춰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춰 본다.	부채, 물감, 사인펜
5	우리는 오케스트라	- 박자를 알려준다. - 꺾을 이용하여 박자를 맞춰 본다. - 풍당 풍당에 맞춰 꺾 박자를 해 본다.	음악, 꺾, 악보
6	만족하는 삶	-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탉'을 읽는다. - 이야기를 나눈다. -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탉을 색칠해 본다.	동화책, 수탉 그림, 색연필
7	나의 어렸을 때 집에는?	- 어렸을 때 집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집에 둘러싸여 있던 우물, 나무, 강아지 그림 등을 이용하여 나의 어렸을 때 집을 회상해 본다.	초가집 그림, 다양한 그림 자료, 가위, 풀, 색연필
8	탈 가면 만들기	- 탈을 이용하여 다양한 탈을 만들어 본다. - 탈을 쓰고 춤을 춰 본다. - 탈을 쓰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탈 가면, 물감, 색종이, 풀, 등

9	길 찾기	- 바닥에 그려진 사다리 꼭대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한 후 사다리를 타고 가 본다. 도착하면 무엇이 있었는지 맞춰 본다. - 맞춘 사람에게는 사탕을 준다.	색 테이프, 여러 가지 그림, 사탕 등
10	봉숭아 물들이기	- 봉숭아 연정을 불러본다. - 어렸을 때 봉숭아 물들이기를 이야기해 본다. - 열 사람에게 봉숭아 물을 들여 준다.	봉숭아 물들이기 재료
11	상상 여행	- 만다라를 그린다. - 만다라를 통해 이야기를 나눈다.	만다라 그림, 색연필
12	나에게 주는 선물	- 과일바구니 그림을 준다. - 다양한 그림을 주고, 콜라주를 이용하여 과일바구니에 넣고 싶을 것을 담게 한다. - 과일바구니에 들어 있는 것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을 것을 이야기해 본다.	과일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다양한 그림들, 가위, 풀, 색연필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도입단계, 활동 단계,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각 회기 운영은 도입부에서 인사·Warm-up, 차시 소개 등 12회분, 본 회기 활동 40분, 마무리 15분 등 총 60분으로 설정하였다.

3.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분석도구와 질적 분석도구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첫째로 양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인지기능과 노인 우울척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척도 검사 도구로 활용하였고, 사전 사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치매 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질적 분석으로 통합예술치료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관찰일지를 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 및 결과

통합예술치료 실시 후 개인별 인지도와 우울증 효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인지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인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우울증 대부분 감소 현상을 보여 인지력보다 우울증이 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인지기능과 우울을 통합예술치료 전후의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 개인별 인지도, 우울증에 따른 통합예술치료 사전 사후

대상	나이	성별	MMSE-K		단축형노인우울척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	84	여	18	20	4	2
2	81	여	14	16	2	1
3	71	여	10	14	2	2
4	79	여	15	17	5	2
5	90	남	23	27	6	3
6	82	여	22	25	7	5
7	86	남	23	24	8	3
8	81	여	21	23	3	2
9	83	여	18	18	5	2
10	81	여	12	16	7	5
11	88	여	20	20	10	10
12	89	여	9	11	9	7
13	81	남	10	10	5	2
14	89	남	23	25	11	12
15	85	남	19	20	11	6
16	87	여	10	14	8	6
17	85	남	15	17	4	6
18	88	남	20	20	6	6
19	80	여	13	13	5	3
20	78	여	23	26	13	13

4.1 통합예술치료를 받은 실험집단 초기치매 노인은 통합예술치료 실시전보다 인지력 점수(MMSE-K)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결과로는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검사 시기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초기치매노인에게 통합예술치료 전 16.90에서 통합예술치료 후 검사에는 18.80으로 인지기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통합예술치료의 초기치매 노인 인지기능의 변화량에 대한 t의 값이 -5.871이고, 유의확률(p-value)

<표 5>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value
		MEAN±SD	MEAN±SD		
실험집단	20	16.90±5.015	18.80±5.064	-5.871	.000

*p<.05, **p<.01, ***p<.001

이 0.000로서 유의수준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통합예술치료를 받은 실험집단 초기치매 노인은 통합예술치료 실시 전보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 결과로는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우울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검사 시기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초기치매노인에게 통합예술치료 전 6.80에서 통합예술치료 후 검사에는 4.85로 우울 정도가 매우 큰 차이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 우울증 변화량에 대한 t의 값이 5.325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01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구분	n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value
		MEAN±SD	MEAN±SD		
실험집단	20	6.80±2.648	4.85±3.329	5.325	.000

*p<.05, **p<.01, ***p<.001

4.3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사전, 사후 변화는 어떠한가?

초기치매노인을 위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동 관찰법을 이용한 질적연구를 관찰일지를 통해 매일 미일 기록하여 사전 사후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10회기를 통한 행동관찰일지 기록 결과는 거의 말이 없고, 활동에도 관심이 없던 대상자 1번의 경우 웃음이 많아지고, 활동을 하면서 말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 3번의 경우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고향에 가고 싶다’라면서 울기만 했다. 하지만 활동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이건 일도 아닙니다’라면서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6번은 ‘나 못해’라면서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빨리 나아가서 예전처럼 아내랑 놀러 갈 거야’ 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8번의 경

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곧 죽을 거라는 말을 했으나 목소리도 커지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남을 도와주는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 9번은 ‘좋고, 싫고’를 분명히 하여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났으나 적극적인 활동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자신감이 커졌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남의 작품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대상자는 초기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표현하는 모습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 7번의 경우 무관심하였으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색과 표현들이 풍부해졌으나 관심 있는 분야에만 말을 할 뿐 거의 말을 피하려고 하고 귀찮아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

<표 7> 초기치매노인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사전 사후 변화

대상	사전	사후
1	- 말이 없으심 -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음 -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관찰하고 되돌어 봄	- ‘나 아이 취급하지 말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그래요? 나 고대 나온 여자야’ 하며 크게 웃음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함 - 작품을 ‘가져가도 돼?’라고 물음
2	- 항상 ‘고마워요’라고 함 - ‘이거 못해요’ 하며 남의 눈치를 봄. - 옛날 트럭으로 돌아다니며 찻을 팔던 때를 생각하며 신나게 춤추고 노래 부름	- ‘잘했어요?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웃는다. - ‘내가 모른다고 날 무시해요’라고 말할 - 완성을 못 하면 도와주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뿌듯해함 -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함
3	-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라는 말씀하심 - ‘난 선생님이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 ‘중국(고향)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심	- ‘작품 활동하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 ‘이건 일도 아닙니다.’‘사랑하심’ - ‘나는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라 하심 -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줌
4	- ‘난 허튼소리는 안 해’ - ‘순서가 아니잖아’하며 남을 몰아칠 - 급하게 빨리 처리하려 함	- 천천히 유도하면 기다리려고 하심 - 완성도가 높아짐 - 본인어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긋나면 큰 소리로 ‘아니!’라고 함
5	- ‘이렇게 사면 뭐해’ 함 - 다른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않고 1~2명하고만 말씀하심	- ‘여기 오면 뭘 하고 선생님이 이 받겨워서 좋아’ -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 - 이복이 고향이어서 고향에 그리움이 가득하게 표현됨 - 검은색도 자주 보임

6	- '나 못해'라고 많이 함 - '약을 많이 먹어서 힘이 없어'라 하심	- '잠깐, 내가 해 볼게'라고 하심 - '빨리 나서서 예전처럼 아내랑 놀러 갈 거야' 하며 스스로 운동하심
7	- 고향 이야기에만 말씀하심 - 무관심 - 한 색으로 칠하고 빨리 끝내려 함	- 성(性)적 이야기에 관심이 많음 - 다양한 색과 그림표현은 다양하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함 - 말을 피하려 하고 귀찮아함
8	-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함 - 몸이 아파서 죽을 거라고 함 - '다 싫다'라고 하심 - 꼼꼼하게 하시고 완성을 중요시함	- 이름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나 이제는 "왜"라고 하심 - 활동을 빨리하고 못 하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심 -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구나"라고 하심 - 어르신들을 통해 어리광도 부리면서 웃음
9	- '난 남자가 좋아'라면서 외로움을 표현하고 질투가 심함 - '좋고, 싫고'를 크게 표현함	- 남에게 큰소리를 치고 시간이 흐르면 잘못 했다고 사과하는 일이 많음 - 질투가 매우 심함 - 활동 작품이 다양하고 창의적임 - 작품을 통해 만족감, 자존감을 높임
10	- 집에서 나가기를 싫어함. - '고향에 가면 할 것이 많다'라고 하지만 갈 곳이 없음. -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심	- 센터에 잘 나오심 -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얼굴에 웃음이 핀다. - '어서 오세요'라면서 다른 사람을 반긴다. - 'کم 세상이 좋아졌어. 이런 것도 하고'하며 잘 따라 하심

5.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초기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의 실시 전후의 인지기능(MMSE-K) 검사에서 통합예술치료 전 16.93에서 통합예술치료 후 검사에는 18.70으로 인지기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인지기능 변화량에 대한 검사 시기별 차이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01보다 매우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통합예술치료 전보다 통합예술치료 후에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의 인지에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천오, 2008; 김해선, 2017; 정진희, 2015)와 일치한다[19,6,24].

둘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초기치매노인의 우울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한 분석 결과는 통합예술치료 전 6.80에서 통합예술치료 후 4.83으로 우울 정도가 매우 큰 차이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김천오, 2008; 양은진, 2012; 정찬구, 2012; 엄세정, 2018)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초기치매노인의 우울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9,20,21,14].

셋째,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대한 사전 사후 변화를 6개월간의 관찰일지를 통해 질적 분석한 결과에서 초기치매노인의 특성인 기억력과 함께 인지력, 인내력, 표현력 부분의 향상과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울의 경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기능에 있어 초기에 기억력 부족과 집중력 분산, 자기표현의 미숙함은 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였지만 프로그램 과정에서 집중시간이 길어지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만족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완성된 작품에 날짜, 이름을 기억해서 쓰는 횟수가 늘고 자신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관찰되면서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경중치매노인에게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도지연, 2020)와 일치한다[12].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격려와 활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활동하면서 즐기는 과정에서 초기치매환자의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합통합예술치료를 활용한 회상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19,24]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전반적인 통합예술치료가 초기치매노인에게 인지기능의 향상과 우울의 감소를 나타냈으나 인지기능과 우울(김해선, 2017)[6]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인지기능의 저하와 우울의 증가세를 보이는 선행연구가 미흡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저하를 뇌의 쇠퇴에서 오는 결과로 볼 때 비약물 치료인 통합예술치료를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객관적 결론으로 보는 것은 일반화하기에 곤란하다. 또한 초기치매노인을 병리적인 진행으로 볼 때 비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치료목적으로는 한계점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정서적인 감정의 우울에서도 같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종합적인 결론은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초기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이 감소하는 결과를 통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의 문제로 시작되는 초기치매노인에게 병중 진행을 지연시키고 우

울 증세를 완화하는 정서적 자극 치료가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대상이 한 기관의 13명의 소수의 대상자를 통한 임상 사례의 연구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통합예술치료를 12회기로 하여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 감소에 객관적 결과로 확립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에 좀 더 장기간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례를 늘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에게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합예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이은하, 안석균, 오병훈, 김기현, 이연희, 오희철, 김승민(2000), 여성 경도 알츠하이머형 치매군, 치매의심군, 그리고 비치매 대조군 간의 신경 인지기능의 비교, *대한신경정신의학*, 39(1), 167-182.

[2] 김종필(2012), 치매노인의 우울과 자살의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박홍준(2020), 집단통합예술치료가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이미정(2018), 치매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적용,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김주영(2021), 노인의 행복감과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혜선(2017), 회상중심 통합예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생활만족도,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수정(2008), 통합예술치료가 여가 복지시설이용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중앙치매센터(2023), 2012년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

[9] 문봉근(2014), 독거노인의 우울과 수면장애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대한치매학회(2011), *치매 임상적 접근*, 서울: 아카데미.

[11] 고혜월(2011), 점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정서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도지연(2020), 집단표현 예술심리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김소형(2018), 치매노인의 정서적안정과 사회적행동증진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엄세정(2018), 통합예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감소 및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Folstein, M. F., Folstein, S. E., & Mc Hugh, P.R (1975), Mini-mental state: A practical method for grading the cognitive state of patients for the clinician.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3), 189-198.

[16] 권용철, 박종한(1989), 노인용한국판 Mini-Mental.

[17] J. Sheikh, J. Yesavage(1986), Long-term efficacy of cognitive training for age associated memory impairment: A six-month follow-up study.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4), 413-421.

[18] 송미순(1991), 노인의 생활기능 상태 예측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김천호(2008), 통합예술치료가 시설치매노인의 인지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및 회귀과정분석,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양은진(2012),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예술치료가 우울감, 고독감과 사회적 유대감형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정찬구(2012), 통합예술치료를 활용한 회상집단상담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심숙영(2022), 통합적인지각화프로그램훈련이 경도인지장애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개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김우영, 전원경, 허은정, 박상영, 한창현(2011), 한의학의 치매 관련 임상연구 동향분석과 제안, 한국한의학연구원, 17(2), 39-46.
- [24] 정진희(2014).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 승 숙 (Seung-Suk Baek)



- 2020년 02월 : 협성대학대학원 아동보육박사
- 2023년 12월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치료학 석사
- 관심분야 : 상담심리, 노인상담, 가족상담 등
- E-Mail : bss1052@naver.com

신 동 열 (Dong Yeol Shin)



- 2010년 02월 : 건신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졸업
- 2014년 03월~현재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정신역동꿈분석 등
- E-Mail : counme3@naver.com